

기독교가 직면한 12가지 질문

1. 우리는 종교 없이도 잘 살지 않는가?

● 성경에 나온 일곱 원리의 유익

-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행 20:35)

- 돈을 사랑하면 실망이 남는다.

: “부자가 하늘 나라에 들어가기는 낙타가 바늘귀 통과하기보다 힘들다”(마 19:23, 막 10:25, 루 18:24,25)

: “모든 악의 뿌리는 돈이다” ----- 사도 바울

- 소명인 경우에 일이 잘 풀린다.

: 자기 일에 마음을 다하고 그 일을 더 큰 목적과 연결시키며 만족을 얻을 수 있다.

:(우화) 첫째 벽돌공은 벽돌을 쌓고 있습니다. 둘째 벽돌공은 교회를 짓고 있습니다. 셋째 벽돌공은 하느님의 집을 짓고 있습니다. 첫째 벽돌공에게는 생계를 위한 일, 둘째 벽돌공에게는 직업이 있다. 셋째 벽돌공에게는 소명이 있다.

-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로 행복할 수 있다.

: 현대심리학자들은 우리에게 행복을 합성할 수 있는 고도로 발전된 능력이 있다고 말한다. - “심리적 면역체계”

- 감사는 우리에게 이롭다

: 바오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한다.

: 기독교인들에게 감사는 단순히 긍정적인 기법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구해 주신 하느님을 진심으로 대하는 마음가짐이다.

- 절제와 인내의 도움으로 우리가 성공한다.

: 사도 베드로는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고 하였다.

- 용서는 기본이다

: 기독교인들이 받은 명령은, 약한 이들과 상처 입기 쉬운 이들을 보호하지만 각자 복소나 변호는 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러는 대신 기독교인들은 자신이 용서받았듯이 남을 용서해야 한다.

- 밥이 되겠는가, 아니면 메리가 되겠는가?

: 종교활동이 심신의 행복을 개선하는 특효약이라고 비유할수도 있다.

- 우리는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가 필요하다

: 아주 깊이 있는 윤리적 헌신 가운데 다수의 역사적 철학적 토대를 돌아보면, 다시 기독교와 만나게 된다.

- 그래서 어떻다는 말인가?

: 최근에 무엇을 믿든, 우리는 기독교와 정면으로 마주치게 되어 있다. 기독교는 세계에서 가장 널리 퍼진 신앙 체계이며, 지적 발자국의 가장 멀리까지 닿아 있고, 인간이 어떻게 변성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지혜를 풍부하게 담고 있다.

2 기독교는 다양성을 짓밟지 않는가?

-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대해 고려할 때 가장 큰 윤리적 장벽은 기독교가 백인, 서양 종교이고, 본질적으로 문화 제국주의와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이다. 우리는 다양성을 찬양하며, 서양인들이 종교를 이용하여 토착 문화를 파괴한 방식을 한탄한다.

- “기독교가 서양 종교라는 터무니없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문자 해독은 서양적인가?

- 기독교가 서양 문명을 독차지한 반면에, 서양 문명은 한 번도 기독교를 독차지한 적이 없다.

- 문자 해독은 서양에서 시작되지 않았으며, 오늘날 문자를 해독하는 사람 대부분은 서구인이 아니다. 기독교가 서양 종교라는 주장은 변호의 여지가 없다. 더구나 그러한 주장은 성경 자체가 거부한다.

성경의 다양성 윤리

- 통념과 달리, 기독교 운동은 시작부터 다문화 다민족적이었다. 예수께서 인종과 종교상 경계를 허물어 버리셨기 때문에 동족 유대인들이 분개했다.(예: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 기독교가 다양성을 반대하는, 서구 백인의 특권 종교라는 생각은 신약 성경과는 전혀 양립할 수 없다.

첫 아프리카인 기독교인

-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는 필립에게 세례를 받는다.

- 로마의 기독교화보다 반 세기 앞서 이디오피아와 에리트레아는 기독교 국가가 되었

- 아프리카 지역으로 퍼져 나갔다.

비행기 동승자

- 통념과 달리 기독교는 민족적, 문화적, 사회 경제적, 인종적으로 역사상 가장 다양한 신앙 체계라고 생각한다.

중동,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빨리 성장하며, 가장 박해받는 교회들의 고향

- 걸프전쟁여파로 이라크에서는 기독교 인구가 극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나 , 이슬람 혁명으로 극단적 이맘들이 들어 권력을 장악한 이란에서는 기독교인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기독교는 인도에 어울리는가?

- 인도는 대다수의 힌두교도와 힌두교도 조상들의 고향이다. 무슬림이 약 14% 이고, 기독교인은 2700만 명으로 약 2%를 간신히 넘는다. 영국 제국의 통치 역사 때문에 많은 이가 기독교를 서구 문화와 같은 뜻으로 여기게 되었다.
- 힌두교와 기독교 사이에서 긴장이 일어나는 영역 중 하나가 바로 다양성 문제다. 전통 카스트 제도(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부가촉천민인 달리트)는 사람들을 정해진 사회적 신분에 따라 분류하고 있다.
-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게 소중하며 존엄하다고 주장한다. 인종차별과 계층화는 기독교에 전혀 토대를 두고 있지 않다. 사실은 명백하게 정죄를 받는다.
- 간디는 “나는 그리스도를 좋아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매우 다르더군요. 기독교를 서양의 문화 지배와 융합하는 사고방식은 인도에 알맞지 않다. 그러나 성경적 기독교는 차이를 뛰어넘는 인간 평등과 사랑에 필요한 토대를 놓으므로 분명 인도에 알맞다.

아름다운 암소들!

- 어느 문화에나 사각 지대가 있다. 다양성 덕분에 우리는 낯낯이 볼 수 있다.

중국_세계에서 가장 큰 기독교 국가?

- 정부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기독교 인구는 증가하고 있다. 2030년이 되면 중국 기독교 인구가 미국 기독교 인구보다 많아지겠고, 2050년이 되면 중국이 기독교 인구가 다수인 나라가 될 수도 있다.
- 중국이 앞으로 30년 후에 공산주의에서 기독교로 바뀐다면 세계 정치에 어마어마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공원 사건

- 공원에서 기독교인인 노인을 만났다.

역방향 통행

- 세계의 기독교인은 대부분은 백인도 아니고 서양인도 아니며, 기독교에서는 하루가 다르게 백인 서양인이 줄어들고 있다.

미국은 어떠한가?

- 미국으로 온 이민자 대부분은 기독교인이며, 인구학 통계로 보면 미국에서 기독교를 가장 많이 무너뜨리는 인종은 백인이다.

역사상 가장 다양한 운동

- 다양성에 신경을 쓴다면 기독교를 외면하지 말라. 기독교는 역사상 가장 다양하고 다민족적이며 다문화적인 운동이다.

3장 진정한 믿음은 하나만 있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보편적 무례

- "내 하느님은 어느 한 종교에 담기에는 너무나 크시다."

방 안에 있는 코끼리

존중문제

- 정말로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존중하는 것보다 그들을 존중해야 하는 것이다.

진실문제

- "과학과 관련해서 명언은, 과학을 믿든지 안 믿든지 과학이 진실이라는 것이죠."
- 과학은 가설을 증명한다기보다는 이용할 수 있는 자료에 맞추어 가설을 전개한다.
- 사람들 대부분은 종교가 있는 사람이 비과학적 신념을 고수할 권리를 옹호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과학에서 객관적 진실의 실상이 신빙성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하지는 않으며,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생각을 바꾸도록 설득하고 싶다.

역사문제

- 기독교와 운명을 같이하는 핵심 진리 주장은 예수께서 육신적으로 부활하셨다는 것

이다. 터무니없어 보일지라도, 이 주장을 지지하는 역사적 증거가 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어느 랍비의 풀죽고 겁 많으며 적은 무리인 제자들에게서 초대 교회가 나오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려면, 불을 붙일 불꽃이 절실히 필요하다.

- 기독교인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셨다고 믿는다. 무슬림들은 예수께서 죽지 않으시고, 대신 하늘로 올리우셨다고 믿는다. 유대교인들은 예수는 죽었고, 여전히 죽어 있다고 믿는다. 이러한 주장들은 상호 배타적이다. 이러한 기본적 수준에서 보면, 종교적 진리는 역사적 진실과 계속 얽혀 있을 수밖에 없다.

개종 문제

- 힌두교 신자인 프러빈은 힌두교 유산을 상당히 즐기기는 하지만, 힌두교의 기본 주장들이 참이라고 믿지 않는다. 기독교로 개종한 프라빈은 힌두교와 기독교가 궁극적으로 양립 가능하다는 주장은 양쪽에 모두 해를 입히는 것이라고 말할 것이다.

윤리문제

- 자신의 종교가 유일한 진리라고 말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 이들 대부분은 보편 윤리의 신념 역시 긍정한다.

유일신론적 문제

- 유일신 사상은 깊이 들여다 보면 배타적인 동시에 보편적이다.

예수문제

-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
-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 예수께서는 하늘과 땅을 다스린다고 주장하신다. 그분은 자신을 하느님에게 갈수 있는 길이 아니라 자신이 바로 하느님이라고 소개하신다. 우리는 그분을 믿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그분은 많은 진리중 하나이실는 없다. 그러한 선택을 우리에게 맡기지도 않으셨다.

4장 종교는 도덕을 저해하지 않는가?

종교가 도덕을 해친다는 주장에 담긴 문제

- 종교가 도덕을 저해한다는 주장에는 세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문제는, 그 주장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둘째 문제는 그 주장이 자료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종교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비종교인보다 기부금을 많이

내고, 자원봉사도 많이 하며 범죄발생률도 더 낮다. 셋째 문제는 우리가 자명한 진리를 사용하여 도덕을 가늠하는 보편적 잣대가 있다고 생각하나 그러한 잣대는 없다.

세계 인권 선언은 어떠한가?

- 세계 인권 선언은 유대-기독교의 영향이 담겨 있다는 이유로 비판받았다.

인권의 기원

-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노골적인 우생학을 지지했으며, 아리스토텔레스는 기형아는 생존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 이러한 세상 속으로 1세기의 어느 유대 랍비가 들어와, 여성을 높이고 어린이를 귀하게 여기며 가난한 이들을 사랑하고 병든 이들을 안아 주었다. 초기 기독교는 인종과 민족의 경계를 넘어서고, 자유인과 노예라는 이분법까지도 넘어서는 형제애를 강조하여 새로운 도덕적 상상력을 불붙이는 불꽃이 되었다.

피터 싱어의 우연한 회심자

- 예수께서는 다른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시고 고난과 모욕과 죽음을 받아들이셨다. 기독교인으로 살라는 것은, 이 새롭고 급진적인 창조의 일부가 되라는 부르심이다.

악한 믿음

- 히포크라테스는 예수보다 400년 전쯤 살았는데 그 당시는 어린이는 재산이었으며 학대를 당했고 유기가 흔히 일어났으며 노예와 다를 바 없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아이들 편을 들어주시고 아이들에게 마음을 쓰셨는데, 그때 그분 주변사람들은 보통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무신론은 도덕의 기초를 닦을 수 없다

진화 이타주의는 어떠한가

- 인간은 진화에 의해서 경쟁뿐 아니라 협력에도 적합해져서, 때로는 남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이익을 희생하기까지 한다.

과학과 윤리의 일관성

- 기독교인들이 도덕적으로 탁월함을 타고 났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자신이 도덕적으로 완전히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요, 지금까지 살았던 사람 중에 진정 유일하게 선 한 분의 자비하심에 자신을 의탁하는 것이다.

5장 종교 때문에 폭력이 일어나지 않는가?

“내가 기독교인 될 수 없었던 이유는 십자군 원정 때문입니다.”

- 역사가 로버트 루이스 월킨의 말에 따르면 십자군 원정은 “이슬람이 들어오기 전 수세기 동안은 기독교였던 땅이 점령당한 데 대한 기독교의 역공이었다. 기독교 운동은 단연코 비폭력으로 시작한 반면에, 무함마드는 최초의 무슬림 군대를 직접 지휘했다.
- 십자군 원정과 같은 폭력 사건을 판단하는 윤리적 기준의 원천은 기독교이며, 기독교는 ‘그들과 우리’라는 부족 윤리를 무너뜨리고 인간성을 강조하며 원수의 가치를 강조한다.

불교는 어떠한가?

- 불교도가 다수파인 미얀마에서 로힝야족 무슬림을 대상으로 자행된 폭력에도 분명 기겁할 것이다. 불교 민족주의가 부채질을 한 스리랑카 내전, 현대 태국의 폭력 사태, 달라이 라마 자신의 분 파 내부의 폭력, 2차 세계대전 시대 일본 민족주의에서 불교 단체의 전쟁 가담을 다루는 학술 문헌의 증거가 있다. 17세기 일본에서 일어난 기독교인 대학살에 관한 우리의 집단 기억 상실은, 그보다 500년 먼저 일어난 십자군 원정을 생생하게 기억하는 일과 뚜렷하게 대조된다.
- 세계 주요 종교 중에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등장한 종교는 하나도 없다.

공산주의의 꿈, 공산주의의 악몽

- 예수께서는 자신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왔노라 주장하셨으며, 첫 기독교인들은 이 말씀을 아주 진지하게 받아들였다.
- 마르크스가 내린 결론에 따르면, 기독교는 가난한 사람들을 갇힌 데서 풀어 주는 열쇠가 아니라 조용하게 하는 마약이었다. “종교는 압제받는 피조물의 한숨이요, 무정한 세계의 감정이요, 영혼이 없는 상황의 영혼이다.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인민의 환상에 지나지 않은 행복인 종교를 폐기한다는 것은, 인민의 진정한 행복을 욕하는 것이다.” 따라서 종교 제거는 정의의 향한 길에서 한 걸음 내 딛는 것이다.
- 구 소련, 중공, 기타 공산주의 국가(북한, 캄보디아, 베트남)에서 자행한 끔찍한 시민학살과, 숙청, 가혹한 인권을 생각해보라. 온갖 종교 중에서, 세속적이거나 다른 종류의 종교와 같은 것들 중에서 마르크스주의가 단연코 피를 가장 많이 흘렸다. 마르크스주의라고 하면 유혈 테러, 지독한 숙청, 죽음의 정치범 수용소, 살인적인 강제 노동, 비참한 국외 추방, 인간이 초래한 기근,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는 사형과 기만적인 여론 재판, 명백한 대량 살상과 대량학살을 뜻한다.
- 공산주의가 저지른 여러 학살이 시사하듯이 (적어도 때로는) 종교라는 용을 죽이면 더 끔찍한 짐승이 풀려날 수 있다.

히틀러의 종교

- 홀로코스트는 기독교가 다수인 나라에서 저질러졌으며, 기독교인들도 어느 정도 연루되었으므로 우리 기독교인에게는 영원히 부끄러운 사건이다.
- 히틀러는 종교의 힘을 지독할 정도로 잘 알았으며 자신의 목적을 위해 종교의 힘을 이용하였다. 나치는 기독교를 노골적으로 배척하기보다는 이른바 ‘긍정적 기독교’를 지지하면서, 성경을 자기네 목적에 맞게 뜯어고쳤다.

히틀러의 과학

- 히틀러는 자신의 인종 차별주의 이념을 지지할 새로운 종교를 낳기는 했지만, 그 종교를 과학으로 정당화 하려고도 했다. 히틀러의 관점에서는 아리아 인종이 그야말로 우월했으며, 인종의 순수성 유지가 진화의 윤리였다.

히틀러의 철학자

- 히틀러에게 가장 강렬하게 지적 영향력을 끼친 인물은 19세기 독일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였다.
- 니체는 짜라투스트는 이렇게 말했다.에서 초인을 상상했는데, 초인은 선악을 초월하며 이 ‘노예의 도덕’을 떨쳐버리는 인물이다. 짜라투스트라는 유인원과 인간사이의 진화 관계를 인간과 초인의 관계와 비교한다. 히틀러는 이 발상을 아리아계 독일인과 연결했고, 기독교가 건네는 나약한 도덕을 배척했다.

나치즘을 염두에 두기

- 도덕적 기반이 없다면 인간 평등에 대한, 또 폭력과 인종 차별 거부에 대한, 이른바 자명한 도덕적 진리를 고수할 수 없다. “기독교 신앙을 끊어 버린다면, 기독교 도덕에 대한 권리를 자기 발 밑에서 치워버리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어떠한가?

- 민주주의로도 대량학살을 자행하는 독재자를 확실하게 말아내지는 못한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는 일정 범위의 기대와 관련이 있다. 민주주의는 “성장률이 더 높고, 전쟁과 학살이 더 적으며, 더 건강하고 교육을 잘 받은 시민이 있고, 기근이 사실상 거의 없다.
- 플라톤은 재능 있는 엘리트를 넘어서 권력을 공유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이유로 민주주의를 반대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보기에 민주주의는 군주가 인자한 왕이 아니라 독재자인 경우에만 군주제의 개선이었다.
- 기독교인들은 평등이라는 민주주의 이상의 양성을 도우면서, 동시에 국가주의와 엘리트주의라는 억압적 발상을 존속시켰다. 그러나 신분과 상관없는 인간 평등이라는 성경 윤리, 지도자는 종이라는 성경의 주장, 인간의 본성에 대한 성경의 현실주의

덕분에, 기독교로 공적 토양을 일구어 놓은 여러 국가가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권력 분배를 받아들일 수 있었다.

- 선교사들은 “종교의 자유, 대중 교육, 대량 인쇄술, 신문, 자발적 조직, 식민지 개혁이 발전하고 전파되기 시작하도록 한 결정적인 촉매였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안정적인 민주주의가 더욱 가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더 심각한 문제

- 사도 요한이 단언했듯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다.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 놓여 있는 폭력

- 종교가 폭력의 원인인가? 물론 그럴 수 있다. 그러나 수백만 명이 신앙에 이끌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긴다. 그리고 특히 기독교는 민주주의를 위해서 거름역할을, 정의를 위해서 동기를 부여하는 역할을, 치유를 위해서 권한을 위임받는 역할을 해왔다.

6장 성경을 어떻게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 문자 그대로의 말로 거짓말을 할 수 있고, 은유를 통해 진리를 말할 수 있다. 사실상 성경에 관해서라면 가장 심오한 진리 일부는 은유적으로 표현된다.

어느 본문은 문자 그대로 읽고 다른 본문은 그렇게 읽지 않는다면 일관성이 없지 않은가?

- 실제로 성경 메시지가 진리라면, 우리 각자의 삶이라는 문자 그대로의 현실은 구체적으로 표현된 은유로, 우리에게 초월적인 하느님을 가리켜 준다.
- 요한 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는 은유로 시작한다. 이 은유에서 하느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성경의 첫 문장이 떠오른다. 요한은 그 말씀을 바로 예수와 동일시해서, 우리 이해에 은유가 가득하게 한다. 이를 테면, 예수는 세상의 빛이시고, 하느님의 어린양이시며, 성전이시고, 참포도나무이시며, 선한 목자이시고, 생수이시며, 그 길이시고, 문이시다.

은유와 기적

- 예수의 가르침 중에 가장 어려운 가르침은 은유적으로 표현되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예수께서 빵을 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하시고, 포도주를 따르시면서 “이것은 내 피다”하고 말씀하실 때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를 놓고, 종교 개혁 시기에 많은 이가 피를 흘렸다.

비유와 시

- 문자 그대로가 아닌 동시에 참인 복합성은 예수의 비유에서 더 드러난다. 예를 하
- 나 들자면 ‘선한 사마리안인’이라는 유명한 비유 앞에는 “그때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 하시되”가 없다. 사실인 것과 문자 그대로인 것의 차이를 구별해야 하고, 성경 어느 본문이든 의미를 이해하려면 장르에 주의해야 한다.

성경은 온통 모순으로 가득하지 않은가?

- 우리는 수천 년 전에 쓰인 글보다 자신의 지적 수준이 더 높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성경을 읽을수록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사복음서에 있는 모순은 어떠한가?

- 사복음서에서 모순으로 보이는 내용은 그 형태가 다양하므로 신중하게 연구해야 한다. 예수께서는 역설을 통해 가르치시는 경우가 흔했다.
- 복음서는 정신없이 몰아치듯이 사건들을 압축하는 경우가 흔하지만, 그때도 사실은 사건과 사건 사이의 시간 간격이 상당하다.
- 현대의 정서 때문에 우리는 사건이 일어난 순서를 바꾸는 것이 내키지 않는다. 그렇지만 1세기의 역사 기술 장르는 오늘날과 달랐다. 특히 요한복음에서는 보통 시간 순서보다는 신학을 강조하는 순서로 사건을 기록한다.

다른 복음서들은 어떠한가?

- 도마복음 같이 신학적 내용이 어쨌든 간에, 성경에 들어오지 못한 그 ‘복음서’들이 정치적 이유로 배제되었으며, 성경에 들어온 복음서만큼이나 성경에 포함될 자격이 있다는 말이 사실일까?
- 예수를 직접 목격한 사도들과의 연관성 측면에서 보면 신약의 사복음서가 더 충실하다는 증거가 충분하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성경에 포함된 복음서들이 예수의 삶에서 일어난 사건들에 아주 충실하며 믿을 만한 자료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예수와 목격자들

- 예수의 삶에 대한 복음서 복사본에서 나온 사본 증거가 역사상 중요한 다른 어느 인물(예: 예수의 공적 사역 기간에 통치한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에 대한 증거보다도 훨씬 많다.

부활

- 당시 유대교 문화에서는 여자들의 증언을 신빙성 있게 여기지 않았다. 여자들에 대한 이러한 문화적 편견은 남자 제자들의 반응에서도 보인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안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 그 당시 메시아 운동이 십자가 처형으로 끝나면, 추종자들은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거나 자기들 중에서 새로운 메시아를 찾았다. 그러나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선언했다. 많은 이가 이 믿음을 위해 죽었다. 정교한 거짓말을 위해서라면 결코 그렇게 죽으려 하지 않았을 것이다.

과학이 기독교의 오류를 증명하지 않았는가?

- 과학에 대해 더 많이 이해한다고 해서 하느님이 더 작아지지는 않는다. 과학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수록 하느님의 창조화동을 더 세밀하게 볼 수 있다.

기독교와 과학의 탄생

- ”보잘것없는 철학으로도 사람의 마음이 무신론으로 기울어지는 것이 사실이나, 철학에 깊이 들어가면 사람의 마음이 종교로 향하게 된다.“----- 프란시스 베이컨
- 역사적 기독교는 지성인들의 삶을 소중히 여겼다. 중세 수도원은 학문 연구의 중심지였다. 최초의 대학교는 사제들을 훈련시킬 목적으로 세워졌다.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의 아주 분명하게 기독교 기관으로 설립되었다.
- 과학자는 시험관에서 자연 현상이 일어나는 자연적 원인을 찾지, 신의 개입을 찾지는 않는다. 그러나 과학의 방법은 무신론에서 생기지 않았다. 그와 반대로 최초의 과학자들은 이 우주를 하느님이 ”우리과 같은 이성적 피조물이 인식할 수 있는 청사진에 따라 설계하시고 창조하셨다고 믿었다. 하느님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창조하실 수 있으므로, ”만물의 청사진을 발견하는 유일한 방법은 실증 연구를 이용하는 것이다.

갈릴레오와 코페르니쿠스의 혁명

- 갈릴레오 사건이 기독교에 대한 과학의 승리를 입증한다는 생각에는 세 가지 문제가 있다.
- 첫째는 갈릴레오는 기독교인이었으며, 태양중심설 때문에 성경의 기반이 흔들리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갈릴레오는 성경 저자들이 일반 사람들의 능력에 맞추어 표현했다고 주장했고, 이는 중세 신학의 기본 원리였다. 그러나 종교 개혁이라는 신학적 전투가 여전히 무섭게 계속되는 동안에는 그러한 쟁점이 정치적으로 비난받았다.
- 둘째는 이 논란 이전에는 기독교의 우주론이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주론이 보편적이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지구중심설을 주장했고 지구는 둥글다고 보았지만, 구약의 고대 근동 우주론에서는 지구가 기둥에 얹혀 있다고 상상했으므로 이 두 우주론은 서로 연관되지 않는다. 따라서 코페르니쿠스 혁명 전에 교회가 지지하던 우주론도 엄격한 성경 문자주의와 양립할 수 없다.

- 셋째는 수세기 동안 기독교인들이 과학에 관해서는 성경 본문에 대한 비문자적 관점을 탐구해 왔다는 것이다.

과학계 기독교인들의 (아주) 간략한 역사

- 과학 세계의 중심에는 진지한 기독교인들이 있어서, 창조주 하느님을 믿는 신앙을 찬성하는 주장을 했다.
- 빅뱅(조르주 르메트르인 벨기에의 로마 카톨릭 사제가 주장)은 무신론을 나타내는 또 하나의 지표가 되기는커녕 흥미롭게도 하느님이 무에서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기독교의 핵심 신앙과 일치한다.
- 종의 기원 저자 찰스 다윈과 가장 가까운 공동 연구자인 아사 그레이는 다윈과 달리 이러한 주장을 하였다. 자연에 "오류의 여지가 없고 뿌리칠 수 없는 설계의 증거"가 가득하다고 보았고, "하느님이 바로 최종적이고 환원 불가능한 요인이며, 따라서 모든 진화 과정 변화의 근원"이라고 주장하며 다윈이 기독교로 돌아오도록 설득하려 했다.
- 완두콩의 유전을 연구한 멘델은 로마 카톨릭 수사였다.

오늘날 기독교인 과학자들

- 무신론자였고 인간 게놈 프로젝트를 이끌었던 프랜시스 콜린스는 수련의를 하는 동안 무신론이 바뀌는 데, 당시 환자들이 고통에 부딪혔을 때 신앙에서 부러울 정도를 도움을 받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이제 콜린스는 "성경의 하느님이 게놈의 하느님이기도 하시다"는 것을 믿는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과학은 우리를 무엇이라고 말하는가?"가 아니라, 하느님은 우리를 누구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다.
- 창조 이야기에 과학적 세부 내용이 없는 것은 실수가 아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메시지를 일부러 최우선시한 것이다. 기독교인으로서 내가 믿기로, 창세기에 있는 창조 기사의 세부 내용은 일일이 하느님의 영감을 받았고, 처음 몇 장은 우리의 가장 심오한 질문, 즉 "우리는 누구인가?",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님과 관계를 맺고, 서로 관계를 맺는가?"에 근본적으로 대답해 주는 성경의 축제에서 첫 코스다.

과학과 사람의 가치

-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하느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성경의 주장을 인간의 유일 무이함의 근거로 삼는다. 하느님은 만물을 존재하라고 하셨듯이, 인간에게는 땅에서 하느님의 대표자로서 창조주 하느님과, 또 서로 특별한 관계 속에서 섬기라고 부르고 도덕적 책임을 맡기셨다.

- 20세기 전반으로 올라가면, 진화가 인종 차별과 우생학을 모두 정당화하는데 쓰인 것을 볼 수 있다.
- 과학적 지식 덕분에 우리는 온갖 유익을 누릴 수 있다. 그러나 과학의 진리를 나머지 모든 진리보다 위에 놓고 과학의 대본이 나머지 이야기들을 배제한다고 믿는다면, 우리에게는 도덕의 기반도, 자신의 유전자를 거스를 근거도 전혀 없다. 우리는 유효 기간이 정해진 세포와 폐기물과 같을 뿐이며, 아무 의미가 없다.

인간은 우연한 존재인가, 설계된 존재인가?

- 콘웨이 모리스의 주장에 따르면, 인간은 임의로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다. 인간과 같은 존재는 진화과정에서 예측 가능한 결과여서, 소설 작성보다는 수수께끼 해결과 더 비슷하다.
- 나를 잉태되게 한 정자의 경주를 정주를 다시 시작한다면, 아마 그 결과는 분명 내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는 내가 있으며, 나는 하느님이 그렇게 하도록 의도하셨다고 믿는다.

타고난 신자?

- 보편적으로 인간에게는 종교적 신념을 품는 성향이 있다. 하느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음으로써 얻는 유익함이 있다. 실제로 하느님의 존재에 대한 인간의 선척적 관심을 하느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증거로 여기는 것은 조금 둔해 보인다! 인간 행동에 생물학적 동기가 있다는 이유로, 그 행동으로 드러나는 더 깊은 현실을 믿지 않는다면, 남편과 아이들에 대한 내 사랑도 마찬가지로 목살될 것이며, 아무 의미도 없다.

미세 조정과 다중 우주

- 무한하신 하느님은 별 수십 억개를 만드셨으니, 우주 수십억 개도 만드실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생명을 위한 우주의 분명한 미세 조정을 대체할 최선의 설명이 무한 개의 평행 우주의 존재라는 것을 알아차린다면, 창조주 하느님에 대한 생각이 아주 허튼 소리로는 들리지 않는다.

자연 법칙으로 충분한가?

- 다중 우주에 널리 퍼져 개별 우주 단위로 특정 부칙이 생기게하는 '광범위한 초월 법칙'도 생각할 수 있다. 여기서 초월법칙은 설명되지 않는 초월적 하느님과 지위가 비슷하다.

”수학의 지나친 효용성“

- 자연과학에서 수학의 어마어마한 유용성은 무언가 신비에 가까우며, 거기에 대해서

합리적인 설명이 전혀 없다. 합리적인 하느님이 우주를 만드시고 하느님의 지성을 그대로 모방한 지성을 인간에게 주셨다면, 그 분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은 그분의 법칙을 깨달을 수 있으리라는 것이다.

8장 기독교는 여성을 비하하지 않는가?

- 구원사의 파노라마속에서 보면 남성과 여성에 대한 성경의 시각이 새로운 의미를 띤다. 남녀에 대한 성경의 관점을 이해하는 열쇠는 끈질긴 사랑 이야기이다.

태초 전에

- 성경의 표현을 보면, 부모됨은 하느님이 그분 자녀들과 맺는 관계를 예증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창조에서 성

- 하느님은 왜 생식에 남자와 여자 모두 필요하도록 우리를 만드셨을까? 아마 관계의 하느님은 그분 자체가 사랑이시기에 혼자 있는 사람으로는 하느님의 형상을 제대로 표현해 낼 수 없어서일 것이다.

깨어진 사랑

-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사람과 하느님의 관계가 깨지고, 사람들 사이의 관계도 깨진다. 죄 없음과 친밀이 부끄러움과 수치와 비난으로 바뀌었다. 생명이 죽음으로 대체되었다.

그분 백성을 향한 하느님의 사랑 노래

- 기독교의 관점에서 보면 은유는 신학에서 중요하며, 은유가 있어야 우리는 볼 수 없고 초월적이며 가늠할 수 없는 하느님을 묘사하기를 바랄 수 있다.
- 하느님의 사랑은 질투하는 사랑이며 또한 용서하는 사랑이기도 하다. 거룩하시고 신실하시며 사랑이 충만하신 하느님이, 사랑이 없고 신실하지 않으며 죄가 가득한 백성과 어떻게 함께 사실 수 있는가?

신랑이 온다

- 세례자 요한은 이런 은유를 든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 구약에서 하느님이 방황하는 자기 백성에게 남편이 되어 주시던 곳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궁극적 형상이신) 예수께서 신랑으로서 역사 속으로 걸어 들어오신다.

복음서에 나오는 여자들

- 남성 본위 문화에서 예수께서 설교하시는 내내 여자에게 관심을 기울이신 것은 놀라운 일이다. 예수께서는 여자들을 도덕적 모범으로 높이신 것은 훨씬 인상적이다. (예: 예수의 발에 향유를 바른 여인, 동전 두 닢을 헌금한 가난한 과부)
- 예수께서 12제자들을 모두 남자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여자를 귀하게 여기신 것이 위태로워 보일 수도 있다. 예수의 남자 제자들처럼 이 여자들도 길고 험난한 여정을 함께했다. 이들은 예수의 사역 처음과 마지막 자리에 있었다.
- 예수께서는 틀림없이 여자들을 귀하게 여기신다. 여자들을 깎아 내리고 착취하는 일이 흔한 문화에서 그 사실은 하느님 앞에서 여자들의 지위가 동등하며, 예수께서 여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고자 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그러나 예수의 일생과 사역은 사막과 같은 여성 혐오에서 일종의 오아시스 같은 평등이 아닌가?

결혼 은유에 대한 공격

- 에페소서 5장은 내게 혐오감을 주기도 했지만 이제는 내 죄를 깨닫게 해주고, 예수께 가라고 해준다. 그분은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남편이시며 진정 내 복종을 받기에 마땅하신 유일하신 분이다.

결혼에 관해 바울의 말을 잘못 알아듣다

-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로 가셨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는 서로 사랑하고 존경해야 한다.

'전통적' 성 역할에 대한 규정은 없다

- 성경의 표현으로 보면, 일의 가치는 얼마를 버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일하느냐로 가늠한다. 실제로 예수께서도 전형적인 지도자셨지만 돈을 벌지 않으셨고, 여제자 몇 명에게 재정적으로 의지하셨다.
- 남편들이 자기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 예수께서는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 때문에 매 맞고 낮아지셨지만, 완전한 사람이다. 아무든지 결혼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을 여성에 대한 남성 우월주의나 학대나 편하를 정당화하는 데 이용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를 전혀 본 적이 없는 것이다.

결혼의 마무리

- 결혼 은유의 성취는 성경의 마지막 책에서 볼 수 있다. 사도 요한은 수많은 무리가 외치는 것 같은 소리를 듣는다.

어린양의 혼인날이 이르렀다.

그의 신부는 단장을 끝냈다.

-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는 물을 마신다면 결코 다시는 목마르지 않으리라고, 그런데 그 물은 그 물을 마신 사람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하셨다.

교회 안에 있는 여성들

- 초대 교회에서는 여성이 다수였으며 기독교 전파에도 여성들의 역할이 컸다는 증거가 많다. 사도 바오로가 로마서 끝부분에 동역자 명단에 여자 아홉 명을 포함시킨 것도 한 가지 증거다.
- 오늘날까지도 교회에서 신자들의 숫자나 미사 참례 숫자도 여자들이 많다.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인일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유색 인종 여성이다.

기독교와 여성의 권리

- 성경을 선택적으로 읽고 남자들이 여성 혐오적 시각을 퍼뜨린 경우도 있었으나, 기독교인들은 여성의 권리를 위한 싸움을 주도적으로 해오고 있다. 1920년대의 페미니즘 제1차 물결로 미국 여성은 투표권과 토지 상속권을 획득했다.
- 진정한 기독교는 많은 전통 문화의 특징인 여성 소외를 확 뒤집어 버리고, 여성에게 하느님 앞에서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며, 더불어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 다른 이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완전히 새로운 역할도 준다.
- 성은 가치 있고 귀중하며 즐겨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성은 궁극적 선은 아니며, 특별한 언약의 표지이고, 하느님의 형상을 지닌 이들이 많아지게 하는 수단이며, 더 큰 실재를 어렵듯이 보여주는 빛이다.

“생명을 위한다고? 거짓말!

- 원치 않는 임신이 복잡하게, 때로는 가슴아프게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내가 정말로 믿기로는 기독교 신앙에는 낙태 반대가 수반되며, 여성을 혐오하는 까닭에 낙태를 반대하는 이들이 분명 있기는 해도, 낙태 반대가 반 여성적이라는 주장은 오래 갈 수 없다.

9장 기독교는 동성애를 혐오하지 않는가?

- 동성애든 이성애든 그것이 기독교인의 인생 목표는 아니다. 기독교인의 인생 목표는 예수다.

한 몸이 되는 두 가지 방법

- 때때로 사람들은 성경이 동성끼리의 관계를 정죄한다고 말한다. 그렇지 않다. 성경은 기독교인들이 거의 도달할 수 없는 정도의 친밀한 동성 간 관계를 명령한다. 기독교의 틀 안에서 한 몸으로 연합함은 남편과 아내에게만 해당 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해당된다.
- 따라서 성경적 틀에서 우정은 낭만적 사랑을 얻지 못한 사람들에게 수여하는 위로상이 아니다. 결혼처럼, 또 부모가 되는 것처럼 우정은 하느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한 측면을 나타내시는 또 하나의 방법이다.
- 결혼과 우정은 서로 다른 경계의 영향을 받으므로, 그 경계를 이해하면 결혼과 우정의 목적을 각기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경계의 유익

- 어느 기독교인이 동성 친구에게 마음이 끌릴 가능성이 있다면, 해결책은 우정에 굴주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건전한 우정을 키우는 것이다.

갈망을 향한, 그러나 고독하지 않은 명령

- 예수께서는 결코 결혼하지 않으셨다. 바오로는 결혼을 권하기는 하지만 독신을 더 가치있게 여긴다. 독신인 사람들은 교회 가족에 중요했고, 다른 신자들과 깊은 사랑과 교제를 경험해야 했다. 동성애에 끌리지만 독신으로 지내기로 선택한 기독교인들이 교회 안에서 잘 살아갈 수 있다면 더 성경적으로 되고 있다는 뜻이지 덜 성경적으로 되고 있다는 뜻이 아니다.
- 모나리자 복제화처럼, 하느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결코 원본만큼 근사할 수 없다. 예수는 당연히 한없이 아름답고, 한없이 강렬하며, 한없이 사랑하실 수 있다.

성경은 동성애에 대해 실제로 어떻게 말하는가?

- 성경은 이성혼의 논리와 동성애 금지는 수차례 재차 확인한다. 성도덕에 관한 예수의 가르침은 시종일관 구약 율법보다 엄격하다. 외도를 제외하고는 아내와 이혼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다. 예수께서는 성적인 죄를 무섭게 정죄하시는 반면, 성적인 죄를 짓고서 회개한 죄인들은 시종일관 환대하신다.

교회에는 ‘그들과 우리’의 여지가 없다

- 기독교인은 자기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들려 줄 다른 기독교인이 필요하다. ---- 본 회퍼
- 우리는 단독 비행을 위해 설계되지 않았다.

패러다임이 무너지는 때

성과 인종을 구분하기

- 소수 인종과 성 소수자는 학대를 경험했다는 면에서 분명 공통점이 있기는 하지만, 이 두 집단을 동일시 한다면 적어도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 성경은 인종 평등과 통합을 찬성하는 쪽으로 강하고 단호한 반면에, 동성 결혼에 반대하는 쪽으로 똑같이 확고하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관점에서 성경은 완전히 일관되게 인종 평등과 통합과 이 인종 결혼을 지지하는 반면에, 동성 결혼은 반대한다.
- 우리는 인종적 유산과 성적인 행위를 동일시하는 것을 그만두어야하고, 단순히 남성과 여성으로 결혼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전통
- 적 기독교인들은 하나같이 혐오스러운 맹신자라고도 가정하는 것도 그만두어야 한다.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 間性으로 태어났든, 성 기능을 잃었든, 그밖의 이유로 독신을 받아들였든, 그 사람의 삶과 섬김은 가늠할 수 없이 가치있다.

10장 성경은 노예제를 옹호하지 않는가?

보시는 하느님

-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의 노예 하갈과 동침하기로 한 것은 하느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느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부족을 드러내는 일이었다. 그러나 하느님은 친히 정말로 놀라운 방법으로 하갈을 보시고, 하갈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갈을 인정하셨다는 것이다.

구약에 나오는 노예제

- 고대 노예제는 인종 계급 제도에 얽매이지 않았다. 구약은 노예 포획을 금지하고, 노예들을 보호하며, 우리에게 하갈부터 요셉을 지나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에 이르는 노예의 눈으로 세상을 보라고 권한다. 그러나 구약은 노예제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는다. 그러면 신약은 무엇을 말하는가?

바오로의 빌레몬서

- 바오로는 빌레몬이 돌아온 오네시모를 존중하며 사랑으로, 즉 노예가 아니라 사랑하는 형제로 맞이하라고 간곡히 부탁한다.

노예이신 예수

- 예수께서는 섬김의 최고 행동인 십자가형을 준비하시며, 노예의 역할을 주장하셨고,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하라고 명령하셨다. 바오로는 이 의미를 놓치지 않았기에, 예수의 성육신 자체를 그분이 노예의 형체를 자지신 거으로, 십자가형을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서술한다.

노예로서의 기독교인

- 사도들을 비롯한 초대 교회 지도자들이 노예 표현을 즐겨 쓴 것은 자신들이 철저히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였다.
- 속박 가운데 있던 초기 기독교인들 귀에는 지도자들의 그리스도 노예라는 표현이 분명 듣기 좋은 소리였을 것이다. 이들은 결코 인간 이하의 재산이 아니었고,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지도자들과 동등한 신분이었다.

기독교인으로서의 노예

- 바오로는 노예들에게 반란을 일으키라고 강권하지 않고, 섬기라고 격려한다. 그러나 그 섬김은 땅의 주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께하는 것이다. 바오로가 분명히 밝혔듯이, 어떠한 종류의 일을 하든 상관없이 기독교인 주인들은 사도들에게 윤리적 명령을 받았고, 그 명령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인 자기 노예들에게 적용된다.

살 한 파운드

- 예수께서는 노예의 역할 안에 거하셨다. 바오로는 자신을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일컫고, 도망 노예를 자기 심장처럼 사랑하며, 노예와 자유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하다고 주장한다. 신약은 우월성이나 착취나 강제의 여지없이 그저 형제애와 공통 정체성만으로 구조적인 긴장을 만들어 냈으며, 그 긴장이 마침내 노예제 폐지에서 화산처럼 분출되었다.

교회는 노예제를 지지했는가?

- 4세기에 신학자 그레고리우스와 신학자 아우구스티누스와 요한 크리스소토무스 역시 노예제를 하느님이 정하신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로 보았다. 그런데도 많은 기독교 지도자가 노예제에 협조하였고, 노예제를 완전히 정상적으로 보는 고대 세계의 흐름에 밀려 들었다. 주요 스토아 철학자인 에픽테토스는 자신 역시 한때 노예였는데도, 그 제도에 반대하는 주장을 하려고 들지 않았다.
- 기독교의 대대적 노예 폐지론은 7세기에 확실히 자리 잡기 시작했고, 시간이 흘러 유럽이 기독교화되면서 노예제가 실질적으로 폐지되었다. 13세기 영향력 있는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노예제를 죄라고 주장했고, 교황들도 연이어 그 견해를 지지했는데, 그중에 교황 바오로 3세는 1537년에 노예제를 명시적으로 금지했다.
- 그런데도 노예제는 슬그머니 살아났다. 1562년과 1807년 사이에 유럽 식민지가 확

장하면서 노예가 끄직할 정도로 폭증했다.

- 노예무역에 종사하거나 노예를 소유한 기독교인 백인들은 기독교 윤리와 노골적으로 상충하는 관습을 용인한 것을 보면, 그들이 성경을 진심으로 읽었을 리가 없다.

주요 기독교인 노예 폐지론자들

- 미국 노예제의 혐오스러운 성격 때문에 마침내 미국과 유럽의 주요 기독교 지도자들이 맹렬히 비난하기에 이르렀다. 노예제를 종교의 수치요, 인간 본성의 수치인 저주받을 악행이라고 비난했다. 노예제 폐지운동에서 여성들의 역할이 특히 두드러진다. 열렬한 신자이기도 한 스톤의 단언에 따르면 "나는 여자이자 어머니로서 내가 본 슬픔과 불평등에 억눌리고 마음이 상했기 때문에,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에 수치가 느꼈다.

흑인 교회의 기적

- 마틴 루터 킹은 시민권 운동을 앞장서 이끌면서, 기독교의 약속을 여전히 이행하지 않는 나라에 진리를 말하고, 예수의 무기인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비폭력으로 인도했다. 많은 백인 기독교인이 또 다시 인종 분리라는 죄악을 깨닫지 못하고 흑인 형제 자매의 평등권을 부인했지만, 킹은 이러한 평등이 성경에서 싹텃으며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평등을 제지할 수 없다고 하였다.

11장 사랑이신 하느님이 어떻게 그토록 큰 고통을 허용하실 수 있는가?

- 하느님은 사랑이시며 강하다는 가설이 인간의 고통이 짓누르는 중압감을 어떻게 견딜 수 있는가? 기독교는 인생이 좌초되지 않는 이들에게만 도움이 되는가?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창조주의 존재를 믿으려면 다른 이들의 고통을 그럴듯한 말로 얼버무리고 넘어가야 하는가?

하느님 없는 고통

- 하느님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고통을 당하겠지만, 돌봐줄 우주도 없다. 계획도 없고, 목적도 없고, 악도 없고, 선도 없고, 앞이 안 보이는 냉혹한 무관심만 있다. 우리는 그 심연을 들여다보아야 하면, 상투적인 말로 자신을 기만해서는 안 된다. 매우 많은 것이 위태위태하다.

불교도의 고통 접근법

- 고통을 맞닥뜨리는 열쇠는 분리와 제거가 아니라 의미와 사랑일 것이다. 무소유는 우리가 고통을 겪지 않도록 보호해 줄 지도 모른다. 사랑하면 상처받기 쉬워진다.

열망하고 애쓰면 실망할 위험이 있다. 그러나 무소유는 우리에게서 가장 큰 기쁨을 앗아간다. 분투와 바람과 집착은 우리를 낭떠러지로 데려갈 수도 있다. 그러나 무소유가 발견할 수 없는 보물로 데려다 줄 수도 있다.

고통에 관한 기독교의 관점

예수께서 오지 않으실 때

- 때로는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예수를 큰 소리로 부르는데, 예수께서 오지 않으신다.
- 내게 진짜 두려운 결론은 ‘그래서 하느님은 존재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그래서 이것이 하느님의 진짜 모습이다.’라는 것이다. 때때로 하느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고통의 얼굴 위에는 절망의 눈물 한 방울이 더 떨어진다. 예수께서는 마르다와 마르타가 불렀을 때 오실 수도 있었다. 그렇지만 그러지 않으셨다. 예수께서는 이 자매들을 결국은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일까?

예수께서 오셨을 때

- 마르타는 오빠 나자로가 죽었지만, 자신의 주께서 도우실 수 있다고 여전히 믿고 있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언젠가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세상을 바로 잡으시라는 약속이 있다. 우리의 아픔은 진짜이고 시급하다. 저 멀리 있는 희망으로는 달래지 못한다. 깔끔하고 신학적인 대답은 쓸모가 없을 것이다. 게다가 기독교가 그러한 대답만 제시하지도 않는다.
- 예수께서는 슬퍼하는 마르타를 보고 말씀하신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 우리가 고통에 대해 늘 던져야 하는 질문은 바로 이것이다. 이 고통이 무슨 가치가 있을 수 있을까? 당황스럽게도 예수께서 주장하신 말씀에 따르면, 그분이 그 가치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다

- 우리는 예수 안에서 우리의 온갖 골칫거리와 온갖 아픔을 아는 분을 발견한다. 가장 친한 이들에게 버림받고, 낯선 이들에게 매 맞고, 채찍질과 학대를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으니, 우리의 상처 중에 예수께서 만지지 못할 상처는 하나도 없다. 심지어 아버지 하느님께 버림받기까지 하셨다. 십자가에서 예수께서는 “나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자로야, 나오라!”

- 죽음을 이기는 예수의 능력은 절대적이다. 나는 필연적으로 개인의 종말을 만나는 우리에게 그것이 유일한 소망이라고 믿는다.
- 예수는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니시며, 마르타가 자기 상황을 바꾸는 데 이용할 수

있는 기계도 아니시다. 예수가 목적이다. 마르타의 고통이나 우리의 고통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다. 그 고통은 하느님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게 할 정도로 중요하다. 관계에서 고통은 일종의 진입 지점이며, 그 관계는 기쁨을 통해서뿐 아니라 고통을 통해서도 형성된다. 예수께서 주장하셨듯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 그분과 관계를 맺는 것이라면, 핵심은 고통 속에서 그분을 발견하는 것이다.

고통과 죄

- 성경은 누군가가 겪는 고통의 분량이 그 사람의 죄에 비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한다. 구약에서 욥기는 이 점을 극적으로 보여준다. 예수께서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을 두고, 그것은 그 사람이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느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말씀하신다. 이 가르침이 기독교가 업보와 환생을 가르치는 불교의 견해와 다른 점이다.
- 기독교에서는 지금 특권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라는 철저한 치료를 받지 않는다면 내세에 고통을 받으리라는 경고를 받는다. 지금 고통당하는 이들은 하느님의 마음 가장 가까이에 있다. 이 예는 부자와 나자로의 비유에서 알 수 있다.

고통과 사랑

- 하느님은 사랑하시는 아들의 십자가를 세우신다. 예수의 죽음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대안도 아니다. 그 죽음을 중심으로 인간의 전 역사가 돌아가며, 그 죽음은 현실 그 자체의 중앙에 있는 기둥이다. 죄 없는 이 사람이 세상의 죄와 죄책과 고통의 짐을 지고 잔인하게 죽음을 당한 것이 그 이야기의 초점이다. 그러나 그 죽음은 끝맺는 말이 아니다.

고통과 이야기

- “모든 일은 이유가 있어서 일어난다”는 상투적인 말이 마음이 괴로운 사람에게는 달갑지 않은 위로가 되는 경우가 흔하다. 기독교의 관점으로는 더 나은 결말이 있으리라는 희망뿐 아니라, 자기를 십자가에 박은 못 자국을 부활의 손에 그대로 지니고 계신 분과 누리는 친밀도 있다. 고통은 기독교 신앙에 골칫거리가 아니다. 고통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 삶에 꿰매 넣는 실이다.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 기독교인들은 언젠가 하느님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라는 약속을 받는다. 그러나 하느님은 우리에게 일단 울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다. 어떤 목적이 이 모든 아픔을 겪을 정도로 가치가 있을 수 있는가? 예수께서는 자신이 바로 그 목적인다고 말씀하신다.

고통과 기독교 윤리

- “우리 믿음이 이론으로만 규정되고 실제 현실과는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임무를 다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약한 사람들, 상처 입은 사람들, 차별로 고통당하는 난민들과 여성들 곁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 콩고의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드니 무퀘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 나는 때로 싸움에서 이긴다. 때로는 진다. 어떤 때는 그리스도의 임재가 내 메마른 마음에 물밀 듯이 밀려드는 기분이 든다. 이야기가 어떻게 끝날지 모른 채 소중한 생명을 꼭 붙잡고 있는 때도 있다. 그러나 내가 생명을 걸어야 하는 주장은, 바로 예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시라는 것이다.

12장 사랑이신 하느님이 어떻게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실 수 있는가?

과학이 죄를 죽였는가?

- 환경과 유전자와 오래된 과거가 우리의 결정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인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에게서 도덕적 행위능력을 통째로 박탈할 생각이 없다면, 때로는 악은 악이라고, 악은 마음에서 나온다고 말해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말할 수 없다면, 사랑을 사랑이라고도 절대 말하지 말아야 한다.

심판의 #미투

- “점점 내게 분명해진 것은, 선과 악을 가르치는 선이 국가들도, 계급들 사이도, 정당들 사이도 관통하지 않고, 다만 모든 인간의 마음 속을 관통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깨달음은 우리의 모든 관계가 어느 정도는 은폐에 좌우된다는 또 다른 문제를 남긴다.

알려지고 사랑받고픈 갈망

- 현대의 심적 고통 대부분은 정체성 추구에서 생긴다. 우리는 진정한 자아가 되는 것이 행복의 열쇠라는 말을 듣는다.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는 자기에의 전투구호다. 진정한 ‘나’는 아름다운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기분은 무엇이든 모조리 억압이며, 죄책감은 뱀 허물처럼 벗어 버려야 한다.
- 모든 이는 자기 노출을 관리한다. 알고보면 우리는 알려지거나 사랑받을지에 관해서, 다양한 수준과 방법으로 선택하고 있다.

발견되기

- 너무나 사랑하는 아이를 잃어버린 어머니가 아이를 찾듯이 하느님은 우리를 찾으신다.
- 돌아온 아들 탕자를 기쁨으로 맞이하는 아버지는 아들이 아무 잘못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받는 아들이기 때문이다. 하느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지명 수배범이 아니라 원하는 자녀처럼, 원하는 연인처럼 찾으신다. 진노가 갈망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십자가의 논리

- 하느님은 하갈이 깨달았듯이 보시는 하느님이다. 홀로코스트에 대한 하느님의 분노, 노예 무역에 대한 하느님의 분노, 학대와 살인과 잔학 행위와 방치에 대한 하느님의 분노가 십자가에서 예수께 한꺼번에 쏟아졌다. 예수께서는 바로 그것을 두려워하신 것이지, 자기 손에 못 박히는 것을 두려워하신 것이 아니다.

천국과 지옥의 진정한 의미

- 성경이 경고하듯이 언젠가 우리는 예수께서 모든 영광 가운데 계신 것을 보면서 그분의 위엄에 고통스럽게 문이 번쩍 뜨일 것이다. 그순간,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보물이 그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을 테고, 과거의 결정을 쓰라리게 후회할 것이다. 우리가 지금 예수를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충만한 삶을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것이다. 우리가 그분을 거절한다면, 그분이 언젠가 우리를 거절하실 테고, 우리는 영원히 참담한 상황에 있을 것이다. 선택은 우리 몫이다. 그러나 정말 우리 몫인가?

자유, 생명, 사랑

- 우리는 조금이라도 진정 자유롭게 선택하는가? 샘 해리스는 자유 의지는 망상, 즉 현실과 연결할 수 없는 신념이라고 믿는다. 성경의 여러 본문은 어떤 면에서 해리스가 묘사한 속박 상태에 있어서, 자기가 바라는 일을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그 바람 자체는 결정할 수 없음을 시사한다. 바오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기” 전까지는 “우리 죄 안에서 죽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진정한 자유의지가 해리스의 세계관에는 존재하지 않는 반면에, 기독교의 세계관에는 존재한다. 하느님은 완벽하게 살아 계시듯이, 완전히 자유로우시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그분의 생명에 달려 있고 우리의 사랑이 그분의 사랑에 달려 있듯이, 우리의 뜻도 그분의 뜻에 달려 있다.
- 나는 예수를 믿으므로 비슷하게 그분에게 의지한다. 예수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간다. 예수께서 사시면 나도 산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께서 죽으시고, 내가 받을 별을 받으셨다. 그분은 내 부활이요 생명이시다.

은혜 스캔들

- 레이첼 덴 홀랜드는 래리 나사르의 성적 학대를 처음으로 고발한 여성인데 나사르의 공판에서, 자신의 순결을 앗아간 남자와 대면하고서 그리스도께 돌아오라고 간곡히 부탁했다. 복음은 아무도 있을 리 없는 곳까지 널리 은혜와 소망과 자비를 베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복음은 당신을 위해 있을 거예요.
-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흉악한 범죄자도 환대받을 수 있다. 또 이것은 우리에게 좋은 소식인데, 우리는 스스로 인식하는 것보다 더 죄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일찍이 꿈구었던 것보다 더 많이 알려지고 사랑받으며, 더 진짜로 살아 있다.

두 세계

- 친구여, 유예된 신념에 만족한다면, 우주의 계획이 있기를 바란다면, 인간 평등이 자명하다고 믿지만 왜 자명한 지 모른다면, 자신의 은밀한 생각을 누구든 알게 된다면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해 줄까 싶다면, 예수께 오라. 압제받는 노예들에게 소망을 가져오신 분에게 오라. 죽은 사람을 무덤에서 불러내시는 분에게 오라. 나는 흉악한 범죄자의 죄를 덮어줄 수 없지만, 그 죄를 덮어 줄 수 있는 분에게 오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하고 예수께서 마르타에게 말씀하셨다. 그분이 당신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신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